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ffecting Factors on Depression among Female Labor Workers

정은숙*, 심문숙**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Eun-Sook Jung(knwf6443@paran.com)*, Moon-Sook Shim(msshim@konyang.ac.kr)**

요약

본 연구는 생산직 여성 근로자의 우울정도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 전략에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여성 근로자 176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일반적 특성, 작업관련 특성, 우울에 관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SPSS 1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작업강도, 작업시 요구되는 집중도, 진동여부, 작업수행의 어려움 정도, 작업 스트레스는 우울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물리적 작업환경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작업강도, 작업수행의 어려움 정도가 우울수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근로자의 우울감소를 위한 작업조건과 효과적인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 | 우울 | 여성근로자 | 작업조건 |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of female labor workers. In order to identify health promotion strategies and intervention program to reduce depression of female labor workers. The participants were 176 female workers of manufacturing industrie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at consisted of personal characteristics, duty related, work related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Using a SPSS/WIN 17.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procedures were employed. As follows on the results; In Correlation analysis, work intensity, work concentration, vibration, work difficulty and job str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In multiple Regression, work intensity and work difficulty were significantly explained by depression. Given the findings, Do nevertheless support the need to develop effective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factors which work related condition and depression.

■ keyword : | Depression | Female Labor Workers | Work Condition |

I. 서론

2011년 7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 25,473만 명 중 취업자는 24,636만명으로 고용률은 60.0%이며,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0,256만명으로 49.2%를 차지하고 있다[1]. 또한 최근 사업장 근로자의 구성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1,2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와 3차 산업 종사자의 증가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고령자와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건강요구와 건강문제가 변화하고 있다[2].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산업장에서 직무 이외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는데[3] 특히 임신, 육아 등 신체적인 부담과 가사노동 및 사회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수준이 남자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3], 직장 가정의 이중 역할과 더불어 근무 이외의 노동 부담과 같은 직업 외적 요인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 부담에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다[4]. 또한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적으며 사회적 지지에 대한 낮은 기대는 직무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며, 이는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3].

또한 작업환경이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신체적, 정신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불안과 긴장, 불만, 무기력, 갈등 등의 정신건강 호소점수가 높았고[5-7], 건강수준이 열악한 상태에 높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작업환경과 근로자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산업장의 작업환경과 관련이 깊은 우울은 작업능력 손실의 주원인이며, 이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와 조직 효율의 저하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우울은 근로자의 약 25%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으로[9] 당뇨병, 고혈압 등의 타 질환에 비해 근로자의 업무손실이 높고, 재발을 또한 타 질환에 비해 높아 보건학적,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0].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작업특성,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은 모든 근로자와 관계가 있으나, 특히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1].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는 직업과 관련한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산업장 여성 근로자의 우울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사회의 건강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 산업장의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울에 의한 단기 업무 손실이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의한 것보다 높아서 [11] 우울은 산업보전에서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당면과제가 되었다. 근로자에게 우울은 그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작업환경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 그 요인에 따른 중재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우울의 경우 우울증 위험수준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 업무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울과 연관된 작업장 내 작업 환경 요인 등 우울 관련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하기 위한 총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우울수준과 작업환경조건이 고려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우울 중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근무조건이나 직무 스트레스 등에 관한 연구[3-6][10][12]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여성 근로자의 작업환경 관련 우울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개 산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정도와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우울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문제를 다룰 때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12]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 및 작업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밝힘으로써 여성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의 우울에 대한 효과적인 중재 접근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개 사업장의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 및 작업 관련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관련 요인을 분석하

여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상주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의 생산직 근로자로 생닭을 손질, 가공, 포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며 총 근로자 500명중 176명을 편의 표집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1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사내 보건실 보건관리자가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후 설문지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익명보장과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점을 강조한 후 연구목적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면 연구 참여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응답시간은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배부된 설문지 500부 중 회수된 설문지는 195부이었는데 무응답이 많아 자료처리가 불가능한 19부를 제외한 176부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3.1 우울수준

우울수준의 측정은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에서 역학조사용으로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13]의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4점 척도를 이용하여 부정적인 문항에는 그렇지 않다 0점, 가끔 그렇다 1점,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을 주었고, 긍정적인 문항에는 역으로 그렇지 않다 3점, 가끔 그렇다 2점, 자주 그렇다 1점, 항상 그렇다 0점을 주어 총점은 60점이다. 21점 미만은 정상군, 21점 이상은 우울군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08$ 이었다.

3.2 근무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의 근무 관련 특성은 [14]의 연구에서 사용한 업무유형, 근무유형, 근무기간, 1주 근무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3.3 작업 관련 특성

본 연구에서의 작업 관련 특성은 작업밀도(작업강도, 작업속도, 작업 시 요구집중도), 작업공간, 물리적 작업환경, 작업내용(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 한 손의 최대 힘, 하루 작업시간, 진동정도, 시각적 요구도,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작업스트레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이루어져 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일개 사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성을 분석하여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근로 및 작업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우울수준은 평균,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과 우울수준과의 비교는 χ^2 - 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근로 및 작업 관련 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만을 이용하여 우울수준과의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은 20대 2.8%, 30대 6.3%, 40대 38.1%, 50대 52.8% 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 3.4%, 기혼이 94.9%, 기타 1.7%이었고, 동거가족수는 2명 27.1%, 3명 이상 54.7%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수는 없음 5.7%, 1명 13.6%, 2명 26.1%, 3명 이상 54.5%이었고, 경제상태는 중 이상 49.4%, 하 50.6% 이었다. 교육정도는 초졸이하 16.5%, 중졸 25.6%, 고졸 53.4%, 대졸 이상 4.5%이었다. 근무

유형은 정상근무 18.8%, 2교대 30.7%, 기타(1일 종일근무) 50.6%이었다. 근무기간은 5년 이하 63.6%, 6년 이상 36.4% 이었고, 1주일 근무시간은 56시간 이상 83.0%, 40-55시간 13.1%, 40시간 이하 4.0%이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즉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수, 경제상태, 교육정도에 따른 우울을 살펴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

표 1. 일반적 특성과 우울정도 (N=176)

구분	N(%)	M±SD	t or F	p	
연령	20대	5(2.8)	24.8±14.72	.232	.874
	30대	11(6.3)	25.8±14.52		
	40대	67(38.1)	23.1±11.35		
	50대	93(52.8)	23.2±11.62		
결혼여부	미혼	6(3.4)	27.0±13.34	.374	.688
	기혼	167(94.9)	23.1±11.61		
	기타	3(1.7)	21.0±11.79		
동거가족수	없음	10(5.7)	25.5±12.31	.131	.941
	1명	24(13.6)	21.5±10.34		
	2명	46(26.1)	22.8±11.61		
	3명이상	96(54.5)	23.6±11.97		
경제상태	중	87(49.4)	22.7±11.77	.383	.537
	하	89(50.6)	23.8±11.52		
교육정도	초졸이하	29(16.5)	21.3±11.25	1.691	.171
	중졸	45(25.6)	23.7±12.03		
	고졸	94(53.4)	22.9±11.34		
	초대졸이하	8(4.5)	31.5±12.46		
우울정도				176(100.0)	
	23.2±11.62	380.20		.000**	

* p<0.05, **p<0.01, ***p<0.001

2. 근무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본 연구대상자의 근무 관련 특성 즉 근무유형, 근무기간, 1주일 근무시간에 따른 우울을 살펴볼 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2. 근무특성과 우울정도 (N=176)

구분	N(%)	M±SD	t or F	p	
근무유형	정상근무	33(18.8)	22.1±11.51	1.098	.336
	2교대	54(30.7)	23.8±11.81		
	기타(종일근무)	89(50.6)	25.5±11.58		
근무기간	5년이하	112(63.6)	23.5±12.03	.180	.672
	6년이상	64(36.4)	22.7±10.96		
1주 근무시간	40시간이하	7(4.0)	23.4±9.14	.099	.906
	40-55시간	23(13.1)	22.2±11.16		
	56시간이상	146(83.0)	23.4±11.85		

* p<0.05, **p<0.01, ***p<0.001

3. 작업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본 연구대상자의 작업 관련 특성에서 작업강도는 약간 힘들다 28.4%, 힘들다 27.3%, 매우 힘들다 26.7%, 아주 힘들 13.1% 순이었고, 작업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누워있는 것 같이 매우 편안한 경우와 힘들거나 아주 힘든 경우 우울점수가 높았다. 작업속도는 약간 빠르다 35.2%, 매우 빠르다 29.5%, 보통이다 26.1% 순이었고, 작업속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5). 작업시 요구되는 집중도는 매우 요구된다 46.6%, 보통이다 27.3%, 약간 요구된다 18.8% 순이었고, 작업시 요구되는 집중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집중도가 약간 요구되는 경우 우울점수가 가장 낮았고, 오히려 집중도가 별로 요구되지 않거나, 거의 요구되지 않은 경우 우울점수가 높았다. 작업공간은 보통이다 42.6%, 매우 비좁다 26.7%, 약간 비좁다 19.9% 순으로 나타났고, 작업공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9). 물리적 작업환경은 약간 열악하다 22.70%, 매우 열악하다 27.8%, 보통이다 44.3% 순이었으며, 물리적 작업환경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물리적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할수록 우울점수가 가장 높았다. 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는 가볍다 14.8%, 보통이다 21.6%, 무겁다 33.5%, 매우 무겁다 30.1%이었고, 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70). 한 손의 최대 힘은 무겁다 48.3%, 보통이다 43.8%, 가볍다 8.0% 순이었고, 한 손의 최대 힘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831). 하루 작업시간은 4시간 이상의 경우가 84.1%이었고, 하루 작업시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85). 진동정도는 거의 없다 38.1%, 가끔 느낀다 48.9%, 자주 느낀다 13.1%이었고, 진동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잦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았다. 시각적 요구도는 많다 77.8%, 적다 22.2%이었고, 시각적 요구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854). 작업수행 어려움정도는 가끔 있다 61.9%, 자주 있다 28.4%, 전혀 없다 9.7% 순으로 나

타났고,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작업수행이 어려울수록 우울점수가 높았다. 작업스트레스는 보통이다 23.9%, 조금 받는다 33.0%, 많이 받는다

39.2% 순으로 나타났고, 작업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사후검정을 시행한 결과, 작업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우울점수가 높았다[표 3].

표 3. 작업 관련 특성과 우울정도 (N=176)

구분		N(%)	M±SD	t or F	p	사후분석
작업강도	누워있는정도 ^a	3(1.7)	28.3±7.51	4.605	.000***	a(b(c(d(e, b(c(d(e(f(g
	매우편안 ^b	2(1.1)	130±4.24			
	약간편안 ^c	3(1.7)	15.2±11.77			
	약간힘듦 ^d	50(28.4)	17.3±10.05			
	힘듦 ^e	48(27.3)	20.5±12.79			
	매우힘듦 ^f	47(26.7)	24.6±11.93			
	아주힘듦 ^g	23(13.1)	31.0±13.79			
작업속도	매우여유	3(1.7)	34.0±4.36	2.1641	.075	
	약간여유	13(7.4)	23.7±15.66			
	보통	46(26.1)	19.9±10.47			
	약간빠르다	62(35.2)	23.1±9.99			
	매우빠르다	52(29.5)	25.6±12.92			
작업 시 요구되는 집중도	매우요구 ^a	82(46.6)	23.5±11.12	4.686	.001**	b(c(a, c(a(d, d(e
	약간요구 ^b	33(18.8)	18.5±9.83			
	보통 ^c	48(27.3)	23.2±11.84			
	별로요구안됨 ^d	5(2.8)	29.0±10.00			
	거의요구안됨 ^e	8(4.5)	36.5±13.19			
작업공간	매우비좁음	47(26.7)	26.2±11.58	2.319	.059	
	약간비좁음	35(19.9)	19.0±11.60			
	보통	75(42.6)	24.0±11.65			
	약간넓적함	12(6.8)	20.1±8.71			
	매우넓적함	7(4.0)	21.6±11.59			
물리적 작업환경	매우열악 ^a	49(27.8)	28.7±12.61	5.528	.000***	b(e(c(d(a
	약간열악 ^b	40(22.7)	18.0±9.94			
	보통 ^c	78(44.3)	22.5±9.98			
	약간좋음 ^d	5(2.8)	26.6±13.16			
	매우좋음 ^e	4(2.3)	19.3±19.17			
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	가볍다	26(14.8)	27.7±13.02	2.397	.070	
	보통이다	38(21.6)	21.8±10.53			
	무겁다	59(33.5)	21.1±10.65			
	매우무겁다	53(30.1)	24.5±12.34			
한 손의 최대 힘	가볍다	14(8.0)	22.3±13.38	.187	.831	
	보통이다	77(43.8)	22.8±11.42			
	무겁다	85(48.3)	23.8±11.62			
하루작업시간	2시간이하	14(8.0)	19.3±10.27	1.702	.185	
	2-4시간	14(8.0)	27.4±9.54			
	4시간이상	148(84.1)	23.2±11.85			
진동여부	거의없음 ^a	67(38.1)	18.8±9.13	11.891	.000***	a, b, c
	가끔느낌 ^b	86(48.9)	24.6±11.32			
	자주느낌 ^c	23(13.1)	30.9±14.15			
작업의 시각적요구도	적다	39(22.2)	22.9±11.21	.034	.854	
	높다	137(77.8)	23.3±11.78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전혀 없음 ^a	17(9.7)	14.3±7.63	17.455	.000***	a, b, c
	가끔 있음 ^b	109(61.9)	21.5±10.12			
	자주 느낌 ^c	50(28.4)	30.0±12.52			
작업스트레스	전혀받지않음 ^a	7(4.0)	22.3±11.30	4.506	.005**	b(c(a(d
	조금받음 ^b	58(33.0)	19.7±9.21			
	보통 ^c	42(23.9)	22.3±11.83			
	많이받음 ^d	69(39.2)	26.9±12.48			

* p(0.05, **p(0.01, ***p(0.001

4. 작업 관련 특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수준은 작업 관련 특성 즉 작업강도, 작업 시 요구되는 집중도, 진동여부,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작업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물리적 작업환경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4].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

본 연구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 한 결과, 회귀모형 적합도 F값은 16.6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 회귀식의 R^2 값은 .192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된 측정변인들의 우울에 대한 설명력은 19.2%였다. 즉 작업강도,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가 연구대상자의 우울수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표 5].

따라서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우울 수준과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우울 감소를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IV. 고찰

최근 근로자의 정신적 안녕은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결정하고 이는 의료비 증가와 근무성과, 조직의 생산성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러 정신적 건강문제 가운데 우울은 근로자의 약 25%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 질병으로[9] 당뇨병, 고혈압 등의 타 질환에 비해 근로자의 업무손실이 높고, 재발을 또한 타 질환에 비해 높아 보건학적,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10].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작업특성,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은 모든 근로자와 관계가 있으나, 특히 여성근로자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11].

본 연구는 일개 산업장 생산직 여성근로자의 우울 현황과 우울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우울정도(CES-D)는 평균 23.2점으로 우울정도를 보여 [15][16]의 연구결과와 유

표 4. 작업 관련 특성과 우울과의 상관관계 (N=176)

구 분	우울		
	r	P	
작업강도	.310**	(.000)	
작업속도	.123	(.072)	
작업 시 요구되는 집중도	.136*	(.047)	
작업공간	-.097	(.155)	
물리적 작업환경	-.173*	(.011)	
작업 관련 특성	손으로 취급하는 최대무게	-.072	(.293)
	한 손의 최대 힘	.046	(.507)
	하루작업시간	.016	(.815)
	진동여부	.290**	(.000)
	작업의 시각적 요구도	.023	(.735)
	작업수행 어려움 정도	.398**	(.000)
	작업스트레스	.298**	(.000)

* p<0.05, **p<0.001

표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요인

	B	β	t	p	F(p)	R	R^2	Adj R^2
작업강도	1.533	.167	2.307	.022*	16.604 (.000)	.438	.192	.180
작업 수행 어려움	5.886	.307	4.215	.000**				
작업스트레스	.697	.059	.755	.451				

* p<0.05, **p<0.001

사하였다. 반면 생산직 남성 근로자의 우울을 연구한 [17]의 연구결과 우울정도(CES-D) 평균 9.5점 보다는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대조적이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 근로자에 비해 같은 형태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직업 관련 스트레스를 크게 경험하게 되고, 정신적 직무 부담, 자율성의 부족과 작업 조건의 과도한 규제를 더 많이 호소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에 비해 우울 발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12]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근로자의 직종, 생산직 여부에 따라 우울점수와 우울 여부에서는 사무직보다 생산직 근로자에서 우울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18]의 연구와, 서비스업 종사자에서 우울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12]의 연구 사례를 볼 때, 본 연구의 경우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웠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없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특성과 우울과의 연관성을 보고하는 다수의 연구가 있다. 여성근로자의 우울수준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12][19][20]와 남성이 여성보다 우울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17][21]도 있었다. 성별, 결혼유무가 우울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한 [22]의 연구와는 달리 [23]의 연구에서는 나이, 결혼유무, 교육수준이 근로자의 우울경험과 관련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타 연구와의 직접적으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근로자의 작업관련 특성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어 근로자의 건강은 작업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결과 우울과 관련 있는 작업 관련 특성으로 작업강도와 작업시 요구되는 집중도, 작성수행시 어려움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작업관련 특성 중 근무시간이 길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우울증 유병율이 높음을 보고한 [22][23]의 연구와, 주당 근무시간이 길고 반면,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업무에 대한 부담을 높여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우울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한 [18]의 연구에서와 같이 작업 관련 특성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우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직무 스트레스는 우울 요인이 되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문제 이외에도 산업장 조직의 업무 실적 저하와 재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그에 따른 결과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소진 및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원의 우울조절 효과를 연구한 [24]의 연구와 우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보고한 [25]의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작업 환경과 근무 조건을 최적화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근무시간과 근속연수에 따른 우울정도에 차이가 없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가 56시간/주이상, 교대근무자로 집단간 비교가 어려웠다.

한편 [19]의 연구에서는 작업환경 변수를 통제한 후에 우울증상이 빈곤 근로자 군에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이는 작업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빈곤 작업 근로자에게 경제적 상태가 우울증상의 요인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우울과의 관련요인으로는 작업강도와 작업수행 시 어려움이었다. 일반적으로 작업강도와 작업시 요구되는 집중도, 작업수행시의 어려움에 의해 작업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이것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22]. 작업스트레스는 우울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단변량 분석시 작업스트레스와 우울 점수와 관련이 있었으나, 다변량 분석결과 작업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아니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작업스트레스가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위험인자로, 특히 여성근로자는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작업 스트레스가 높고 이로 인해 우울이 유발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4][12][18][26-2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작업 스트레스와 우울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업 스트레스와 연관된 작업 외적요인(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정도, 역할 갈등 등)이 작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

로 생각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단순히 작업 스트레스 수준만을 측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 존중감, 사회적 지지정도 등 작업 스트레스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인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노동 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건강위해요소에의 노출에 의하여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 근로자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만이 경험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서적 요소에 특별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신적 건강문제의 발생빈도가 많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예방사업은 주로 작업 환경관리, 안전교육, 사고예방에 치우쳐 있고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부재한 실정이다.

우울의 경우 우울증 위험군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치료를 통해 업무손실을 막을 수 있으므로, 우울과 연관된 작업장 내 작업 환경 요인들을 규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정신적 안녕을 도모하고 조직의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보건학적 건강관리를 위한 총괄적인 작업환경 관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할 때 근로자의 우울수준과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여성 근로자의 우울 중재를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V. 결론

여성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직무와 직무관련 사회심리적 작업 환경에 따라 우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특히 생산직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우울이 근무관련 특성이나 작업환경 특성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근로자의 근무관련, 작업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과의 차이를 분석하고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 생산직 근로자의 효율적인 건강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

체 근로자 총 17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인 연령, 결혼상태, 동거가족 수, 경제상태, 교육정도에 따른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근무관련 특성인 업무유형, 근무유형, 근무기간, 1주 근무시간과 우울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작업관련 특성에 관해서는 작업강도, 작업시 집중도, 물리적 작업환경, 진동여부, 작업수행의 어려움, 작업 스트레스가 우울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대상자의 우울 수준은 작업관련 특성 중 작업강도, 작업시 요구되는 집중도, 진동여부, 작업수행의 어려움 정도, 작업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물리적 작업환경은 우울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대상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한 결과, 작업강도, 작업수행의 어려움 정도가 우울수준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근로자의 건강증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여성 근로자의 우울수준과 작업환경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우울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지지 강화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악하는 확대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2] 김혜련, “계정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보건복지포럼, 2006.
- [3] C. Ogiwara, H. Tsuda, T. Akiyama, and Y. Sakai, “Gender-related stress among Japanese working women,” *Transcultural Psychiatry*, Vol.45, No.3, pp470-88, 2008.

- [4] J. L. Wang, A. Laesage, N. Schmitz, and A. Drapeau,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stress and mental disorders in men and women: Findings from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62, No.1, pp.42-47, 2008.
- [5] 김현주, "직무만족과 작업오류행동에 미치는 스트레스 효과에 대한 집단성 지각과 내외통제 성향의 중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6] 이명선,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의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한보건협회지, 제17권, 제2호, pp101-10, 1991.
- [7] 이경용, "NOISH 작업스트레스 조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보건과 사회과학, 제8권, pp.57-112, 2000.
- [8] D. J. Conti and W. N. Burton, "The economic impact of depression in a workplace," *Journal of Occupation Medicine*, Vol.36, pp.983-988, 1994.
- [9] 우종민,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49-68, 2004.
- [10] 박경옥, "작업환경 및 근무조건 특성과 제조업 근로자의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련성",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0, No.3, pp.272-82, 2004.
- [11] R. C. Kessler, C. Burber, H. G. Bimbaum, R. G. Frank, P. E. Greenberg, R. M. Rose, "Depression in the workplace: Effects on short-term disability," *Health Affairs*, Vol.18, pp.163-167, 1999.
- [12] 이복임, "대인접객서비스 근로자의 성별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한국산업간호학회지, Vol.18, No.2, pp.232-239, 2009.
- [13] M. M. Weissman, B. Z. Locke,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stem rating scale(CES-D) with standardized depression rat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 J Epidemiol*, Vol.102, No.5, pp430-431, 1975.
- [14] 오영아, 이명선, 이경용, "제조업근로자의 작업환경인지도와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연구," 대한산업의학회지, 제4권, 제3호, pp301-314, 2002.
- [15] 정은순, "중년여성의 우울증과 폐경증후군과의 관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3, No.2, pp.230-240, 1997.
- [16] 한수정, "소규모 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우울, 자아존중감과 건강실천행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Vol.16, No.2, pp.454-488, 2002.
- [17] 임혜연, "남성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8] 이규선, 이동배, 권인선, 조영채. "소규모 제조업 남성 근로자의 수면의 질, 직무 스트레스 및 피로와 우울과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Vol.23, No.2, pp.99-111, 2001.
- [19] L. A. Simmons and J. E. Swanberg, "Psychosocial work environment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US workers," *Socio Psychiatry Epidemiology*, Vol.44, No.6, pp.628-635, 2009.
- [20] 박형인, "근로자가 지각한 우울,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생산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1] E. R. Blackmore, S. A. Stansfeld, I. Weller, S. Munce, M. Brander, M. S. Zagorski, and D. E. Stewart, "Work stress and depression in working 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97, No.11, pp.2088-2093, 2007.
- [22] J. J. Cho, J. Y. Kim, S. J. Chang, N. Fiedler, S. B. Koh, B. F. Crabtree, D. M. Kang, Y. K. Kim, Y. H. Choi, "Occupational stress and depression in Korean employees," *International Archived Occupational Environment Health*, Vol.82, No.1, pp.47-57, 2008.
- [23] 박규철, 이경중, 박제범, 민경복, 이규원. "한 자동차 회사의 남성 사무직 근로자에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및 스트레스 증상과의 관련성", 대한산업의학회지, Vol.3 pp.215-224, 2003.

- [24] 이영화, 임왕규. “직무스트레스가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소재 재가노인 방문요양시설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9, pp.414-428, 2011.
- [25] 이희연, 전혜성, “중년여성의 삶의 기대, 마음챙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7, pp.275-284, 2011.
- [26] S. Park, K. Min, S. Chang, H. Kim and J. Min, “Job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Korean employees: The effects of culture on work,” International Arch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Vol.82, pp.397-405, 2009.
- [27] J. Shigemi, Y. Mino, T. Ohtus, and T. Tsuda, “Effects of perceived job stress on mental health. A longitudinal survey in a Japanese electronics company,” Europe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16, No.4, pp.371-6, 2000.
- [28] M. Melchior, A. Caspi, B. J. Milne, A. Danese, R. Poulton, and T. E. Moffitt, “Work stress precipitates depression and anxiety in young, working women and men,” Psychological Medicine, Vol.37, No.8, pp.1119-29, 2007.

심 문 숙(Moon-Sook Shim)

정회원



▪ 1998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건강증진, 노인보건, 삶의 질

저 자 소 개

정 은 숙(Eun-Sook Jung)

정회원



▪ 2003년 9월 ~ 2008년 2월 : 대한간호협회 산하 대한간호복지재단 사무국장
 ▪ 2010년 2월 ~ 현재 : 문경대학교 간호과 전임강사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 노인보건, 산업장 건강증진, 학교보건